

이백과 정철 비교 散論

우상열*

【국문초록】

이백과 정철은 민족도 다르고 시대적으로도 약 800년의 사이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많은 비슷한 점이 보인다. 이로써 양자 사이에 그 어떤 실질적인 영향관계를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정철이 이백을 배운 林石川을 스승으로 모신 것이나 이백의 시적 세계를 흠모하고 사숙한 것에서 이백이 정철에게 적잖은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이백과 정철은 애초에 사람됨이나 성품 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 두 사람은 천성적으로 玉骨仙風에 豪俠하고 활달한 성품에 충기가 뛰어난 인물이다. 또 속물적 근성과 거리가 먼 것 등에서 그 닮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양자는 立身揚名의 유교적 정치이념에 공감했다. 정치적 등용에 대한 주변 환경과 과정, 관직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그 포부만큼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백과 정철은 文豪이기에 앞서 酒豪이다. 이백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 물 속에 잠긴 달을 건지려다 빠져 죽었다는 에피소드는 그간의 사정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정철 역시 「關東別曲」, 「星山別曲」, 「將進酒辭」 등에서 자신의 酒論과 酒興을 숨김없이 반영하였고 短歌에는 술을 주제로 한 작품이 13수나 된다. 이백과 정철은 무엇보다도 인생의 무상과 허무를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신 것 같다. 이런 인생무상과 허무를 이백과 정철은 일종의 도락주의로 갈무리하고 있다. 이런 도락은 음주가무를 떠날 수 없다. 이들에게 있어 술의 의미는 현실에서의 인생고민을 떨어 버리기 위한 것이다. 이백은 고대 성현들의 불우한 처지를 들면서 당세 정치에 쓰이

*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어학부 교수

지 못한 자기의 불우한 처지 등에 걸친 인생역경을 피력하였다. 정철의 경우 그의 가사작품들을 보면 현실의 애상과 애수가 짙은 음영으로 깔려 있다. 이런 스산함을 떨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바로 술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喜笑怒罵나 사랑에 빠지고 성에 탐닉하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현실의 답답함이나 실의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시도였다.

이백과 정철은 시를 짓는 스타일이나 작품세계도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다. 한 글자 한 글자 피를 토해내는 듯한 杜甫 식의 각고의 모태김보다는 일필휘지식의 과감함을 보여주며 양자 모두에게서 보이는 활달하고 통쾌한 작품세계는 각 시대의 문호라는 명성에 걸맞다.

주제어 이백, 정철, 술

주지하다시피 이백(701-762년) 중국 盛唐시기 사람이고 정철(1537-1601년)은 조선조 중기 사람이다. 이들 둘은 민족이 다르고 시대적으로 약 800년의 사이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많은 비슷한 점이 눈에 띈다. 이로부터 이 양자 사이에 그 어떤 실질적인 영향관계를 설정해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아 앞선 시기의 이백이 후세의 정철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려시기 문단이 중국 송나라시기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조선조에 들어서서는 당나라시기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申欽의 <松江傳>에 의하면 정철은 林石川에게서 시를 배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石川은 또한 이백을 배워 그의 門徒들로부터 謫仙이란 칭을 받았다. 그러니 정철이 이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정철의 시적 세계만을 놓고 보아도 정철이 이백을 흠모, 私淑하였음을 알 수 있다. <關東別曲>의 마지막 부분에 정철 자신이 이백에 비유하여 일장의 환상을 엮어놓았음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 그런만큼 이들 지간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영향연구가 우선 되어야 할 줄로 안다. 그런데 이런

연구는 〈松江文學에 끼친 李白 文學의 영향〉(高承柱, 〈국어국문학〉 2집, 조선대 국문학회, 1975), 〈松江歌辭와 中國文學〉(朴魯春, 〈慶熙文選〉 1, 慶熙大 國文學科, 1962. 7), 〈松江文學에 비친 李白의 意態〉(孫八洲, 東岳語文學會 研究發表要旨, 동국대, 1974. 9. 19), 〈松江文學에 나타난 中國文學的 要素〉(吳惠純, 영남대 석사논문, 1973. 8), 〈松江歌辭의 道仙性考-李白의 受容面에서-〉(李鳳麟, 〈語文學〉 51, 韓國語文學會, 1990. 5) 등 논문에서 충분히 진행된 줄로 사료되어 본 논문에서는 비교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평행관계에 치우쳐 인격, 경력, 작품 등 여러 면에 걸쳐 동일한 점과 부동한 점을 짚어봄으로써 이 두 작가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는 데 일조하도록 한다. 이백과 정철은 애초에 사람됨됨이나 성품 면에서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두 사람은 천성적으로 玉骨仙風에 호협하고 활달한 성품에 충기가 뛰어난 것 같다. 속물적 근성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백은 太子賓客 賀知章이 처음보는 순간 ‘謫仙人’이라고 할 정도로 玉骨仙風을 타고 났다. 이백은 유가의 경전뿐만 아니라 백가의 학설을 두루 섭렵했으며 신선도 찾아다녔다고 한다. 〈上安州 裴長史書〉에 보면 그는 ‘五歲誦六甲, 十歲觀百家, 軒轅以來, 頗得聞矣’ 했던 것이다. 그는 蜀에 있을 때 검술도 배우고 長短縱橫術도 배웠다. 그는 도교적인데 많이 심취한 것 같다. 그는 자나 호를 도교적 냄새가 다분히 풍기는 太白과 靑蓮居士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정의감에 놀아나는 호협한 남아의 기백을 떨쳐 불한당 네뎃을 벤적도 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천성적으로 떠돌이 생활이 좋은 지라 20세 때 사천의 명승고적을 답사하고 726년 26세 되던 해에는 집을 떠나 동정호를 거쳐 여산에 올랐으며 금릉, 양주를 지나 다시 호북으로 들어가 안륙을 중심으로 하여 낙양, 태원을 지나 태산에 가보았고 안휘, 강소, 절강 등 중국을 절반 방랑했다고 한다. 그는 절반 인생을 방랑으로 보낸 셈이다. 이백은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다.

‘天生我材必有用，千金散盡還復來’(〈將進酒〉), 자기는 언젠가 꼭 쓰일 날이 있으며千金도 쉽게 굴린다는 배포유함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애초에 아득바득 과거시험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재간을 긍정 받아 하루아침에 출세하는 첩경을 취한다. 당현종의 부름을 받고 벼슬길에 나갈 때 그는 ‘仰天大笑出門去，我輩豈是蓬蒿人’(〈南陵別兒童入京〉)라고 그러면 그렇겠지 하는 콧대 높은 양천대소를 한다. 벼슬에서 쫓겨날 때 그는 ‘安能摧眉折腰事權貴，使我不得開心顏!’(〈夢遊天姥吟留別〉)로 인격적 존엄과 자아자유의 경지를 고취하고 있다. 그는 실로 시인, 유생, 협객, 자객, 은사, 도사, 모사, 주정뱅이 등 다양한 면모로 산 것 같다.

정철도 이에 못지 않다. 〈乙巳傳聞錄·鄭惟沈傳〉에는 다음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정철이 어릴 때 順天으로 형을 만나러 가다가 芝谷里에 있는 滄溪川 龍沼의 맑을 보자 몸을 씻고 싶은 충동에 미역을 감게 되었다. 마침 이때 龍沼 가까운 동산 위에 環碧堂이란 亭閣을 짓고 은거하던 중에 있던 沙村 金允悌가 낮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에 龍沼에 용이 놀고 있는지라 괴이하게 여겨 꿈을 깨어 가보았더니 美少年 정철이 떡을 감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沙村은 한눈으로 그의 비범한 氣骨을 보고 여러 가지로 문답을 하는 사이에 그의 영특함에 놀라 順天으로 가는 길을 만류시키고 자기 슬하에 두어 학문을 닦게 하였다는 것이다. 보다시피 정철은 용, 크게 될 인물인 것이다. 정철도 성격기질 면에서 물욕을 떨쳐버린 도고함이나 강개함이 있다. 당시 세인들의 평을 좀 보도록 하자. 栗谷은 〈石潭日記〉에서 ‘至於鄭澈 忠清剛介 一心憂國’라고 평하고 있다. 李貴의 〈上疏文〉을 보면 ‘澈之爲人 孝友清介 立朝二十餘年 一朝失祿 流落南方 其貧至於炭易米盤無醬 則清高一節 足以範世厲俗 此李珥之所以終身愛重’라고 孝, 友, 清, 介의 선비라 평하며 栗谷이 매우 중하게 여겼다는 것이다¹⁾. 이것

1) 물론 반대당인 東人派들의 ‘故領敦寧府使鄭澈 以蛇蝎之性 懷鬼蜮之謀 毒氣所種

은 같은 西人派의 평이라 과찬이 없지 않아 있겠으니 南人으로서 정철과 좌·우상으로서 조석으로 상대한 柳成龍의 <雜記>의 ‘爲人剛偏 喜言人過 恩讐分明’나 宣祖의 <宣祖批答>의 ‘鄭澈之爲人 其心也正 其行也方 其舌也直 故不容於時’의 평은 그래도 공정한 줄로 안다. 象村은 <松江集序>에서 ‘其風調儷落 姿性清明 … 不爲畛域 廉於物欲’라 하며 그의 조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스스로 호를 松江이라 했듯이 소나무의 도고함이 나 강의 도도함이 있다.

이백과 정철은 뛰니뛰니 해도 일단은 立身揚名의 유교적 정치이념에 공감했다. 이백은 젊은 기분에 ‘奮其智能, 愿爲輔弼’, ‘兼善天下’, ‘濟蒼生’, ‘安社稷’, ‘安黎元’하려는 유교적인 정치적 포부를 품고 있었다. 이런 포부는 ‘苟無濟代心, 獨善亦何益?’할 정도로 순수하고 강한 것이었다. 이백의 많은 古詩들은 그의 이런 정치적 포부를 피력하고 있다. 이를테면 <書情贈蔡舍人雄>에서 ‘談笑安黎元’한 謝安, <梁甫吟>에서 ‘逢時壯氣思經綸’한 姜尙, <讀諸葛武侯書懷>에서 ‘壯志耽咸京’한 諸葛武侯에 대한 찬미를 통해 자기의 뜻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백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정규적인 과거시험을 우습게보고 일부 괴짜들이 하루아침에 출세하는 추천을 통한 첩경을 택했던 것이다. 그는 ‘爲士者終有遇合之時’를 믿었으며 당세의 임금인 주문왕이 姜尙을 중용하듯이 자기를 중용해줄 것을 바랐다. 그런데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괴짜의 이미지를 수립하자면 가만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뛰어난 데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긍정받기 위해서는 웃사람이나 명인들과 사귀는 등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백의 경우를 보면 그는 명산대찰을 仙遊함과 더불어 隱人高士적 이

惟以傷人害物爲事’(<己丑錄 甲年 11月 兩司合啓>)이라는 평을 보면 정철은 실로 귀족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사실 당시 경쟁의 라이벌 관계에서 출발한 공정성을 잃은 왜곡된 견해와 욕으로 일관된 흑평임에 다름 아니다.

미지를 수립하기 위하여 孔巢父, 韓準 등과 더불어 '竹溪六逸'이라 칭하며 한동안 은거생활을 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는 또 웃사람과 명인들과 교유하면서 시국을 담론하거나 시적 재능을 보여주어 조정의 중시를 받아 '收羅遺賢'의 기회를 얻어 하루아침에 출세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백은 결국 도사 吳筠과 賀知章 그리고 여도사 당현종의 여동생 옥진공주 등 도교계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당현종이 연거에서 내려 정중히 맞는 예를 받으며 궁정에 든다. 정철은 정통적인 유교집안에서 자라며 立身揚名의 길을 강하게 지향한 것 같다. 그의 집안이 왕실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됨은 이런 지향을 더 자극했으리라. 그는 정규적인 과거시험의 길을 걷는다. 그는 進士試 1등에, 文科 別科에 장원을 한다. 이백과 정철의 정치생활을 보면 이백은 742~744라는 2~3년의 짧은 기간에 한갓 '要想衣裳花想容, 春風拂濫露華濃'와 같은 궁정시만 쓰는 어용시인 노릇을 한 한림이라는 미관말직에 별 볼일 없이 거치고 말았다. 그러나 정철은 30여 년²⁾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벼슬을 하며 西人派의 당수로 '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승상이 되어 정계를 쥐락펴락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백이 정계에서 쫓겨나자³⁾ 미련없이 벼슬길을 포기했다면 정철은 6起6落의 파란만장한 벼슬생활을 하며 정계생활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백은 애초에 벼슬을 하되 '愿一佐明主, 功成還舊林', '事了拂衣去, 深藏身與名'하는 '功名身退'할 것을 지니고 있었다. <行路難>(三)을 보면 그는 '功成身不退, 自古多衍尤'하는 도리를 잘 알았던 것 같다. 하기에 2~3년의 짧은 기간이나마 벼슬

2) 정철의 벼슬기간에 대해서 李貴의 <上疏文> 같은 데서는 '立朝二十餘年'이라고 하고 있다.

3) 물론 이백은 당현종에게 벼슬을 그만두고 서울을 떠나가겠다는 뜻을 상주하여 윤희를 받아냈다. 이로부터 학계에서는 이백이 스스로 벼슬을 그만 둔 것으로 논의되고 있기도 한데 사실 당시 조정의 객관적 상황이 이백이 그런 상주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을 것을 감안하면 분명 쫓겨난거나 다름없다.

길에서 쫓겨났을 망정 그리 미련은 느끼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짧은 벼슬을 하는 기간에 당현종이 간신들을 중용하고 부패한 생활을 하는 것을 아니꼽게 보아온지라 당현종을 ‘殷后亂天紀，楚懷亦已昏’(<古風> 51)의 殷紂王과 楚懷王 같은 무도하고 암매한 군주라고 욕하며 궁중을 떠날 마음을 먹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벼슬길에서 쫓겨나는 길(천보 4년 즉 744년)로 장안을 떠나 또다시 방랑생활을 시작했다. ‘天子呼來不上船，自稱臣是酒中仙’에서 보다시피 그는 ‘天子’의 부름도 무시하는 흥가분한 ‘酒中仙’이 되어 仙游한다. 그런데 아이니컬하게도 <擬古>(十二), <金鄉送韋八之西京>, <魯中送二從弟赴舉之西京> 등 시를 보면 그가 조정과 당현종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조정과 당현종에 대한 미련, 이 점에 있어서는 정철의 ‘美人曲’과 비슷하다. 보다시피 이백은 정계와 당현종에 대해 모순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이백이 儒·道互補를 통해 심리적 평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낙양에서 杜甫를 만나고 汴州에서 高適을 만나 그들과 더불어 개봉, 제남 등 지역을 즐겁게 유람하였다. 그는 杜甫와 이별한 후 강소, 절강, 하북, 산서, 산둥, 하남 등지를 다니며 방랑생활을 계속했다. ‘我本楚狂人 鳳歌笑孔丘 手持綠玉杖 朝別黃鶴樓 五嶽不辭遠 一生好入名山遊’ 그는 방랑생활 과정에 도술을 담론하고 산수에 정을 붙이기도 했다. 이로부터 자연과 완전히 융합되는 순수한 자연시도 읊어내고 있다. ‘衆鳥高飛盡，孤雲獨去閑。相看兩不厭，只有敬亭山.’(<獨座敬亭山> 보다시피 여기서 시인은 산과 서로 바라보며 거기에 마음을 기탁하고 회포를 풀며 서로 하나가 되는 경지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夢遊天姥吟留別>에서는 현실의 벼슬세계와는 전혀 다른 신선적 세계를 펼쳐내어 일종 절대 자유의 경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철은 임금의 버림을 받아 정계에서 물러나 있으면서도 임금을 못 잊어 <思美人曲>을 읊는다. 이것이 미진한 것 같아 다시 <續美人曲>을 부른다. 이를테면 <思美人

曲〉 같은 데서 임금의 버림을 받은 상황하에서 ‘짓나니 한숨이오/디나니 눈물일다’로 임금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서러움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결국 임금의 부름을 받아 정계에 다시 복귀할 것을 간절히 바란 것이다. 그리고 그가 노래한 자연시도 보면 결국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주관화하여 현실적 정치와 연결된 자신의 인생을 토로하는 인생시를 읊어내고 있다. 아마도 귀양살이 중에 창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次壽翁韻〉을 보더라도 타향에서 자연과 친화하여 살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자신의 현실적 정치지향의지만을 자각하게 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흐르는 물결은 입에 대한 그리움을 실어보내는 매개체로 되면서 정치적 현실에 대한 집착을 더 고양시킨다. 한마디로 말하여 정철의 몸은 자연에 있으나 그의 정신세계는 현실의 정치세계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자연물들은 현실적 정치지향의지를 자각시켜주는데 다름 아니다. 정철의 앞에 나타난 자연물들은 그의 현실적 정치지향의지에 의해 여과된 것이어서 그의 시속에서 순수하게 자연 그 자체의미를 추구한 것은 보기 힘들다. 이 점에 대하여 安秉臺 교수는 〈松江文學에 나타난 自然觀〉에서 ‘松江의 자연관은 곧 인생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겠고 자연관은 자신의 心中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잘 지적하고 있다. 〈靈隱寺〉에서 逃虛, 즉 空의 세계로 도피하는 발걸음이 가볍다함은 곧 현실정치를 도피하고 잊으려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을 떠난 자연에서의 여유작작 노니는 모습은 한 순간의 모습일 뿐인데 그것도 술에 취한 醉를 빌어 가능했던 것이다.

이백과 정철은 文豪이기에 앞서 酒豪이다. 이백의 酒癖은 대단하다. 그가 술에 거나하게 취해 물 속에 잠긴 달을 건지려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에피소드는 그간의 사정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정철의 酒癖⁴⁾에 대해서

4) 정철의 酒癖에 대해서는 현재 정철의 증손들이 살고 있는 鎭川郡 文白面에 있는 중

는 ‘只憂汝病 母念我酒 此後將息 一意矜持’⁵⁾에서 보다시피 가족들이 심려할 정도로 심했던 것이다. 정철은 漢詩 등 많은 嗜酒詩에서는 물론 우리 말 시가에서만도 〈關東別曲〉, 〈星山別曲〉, 〈將進酒辭〉 등에서 그는 자신의 酒論과 酒興을 숨김 없이 반영하였고 短歌에는 술을 주제로 한 작품이 13수나 된다. 특히 漢詩 574수를 보면 시의 소재로 인용된 ‘酒’의 시어는 100여 회나 된다. 이백과 정철은 무엇보다도 인생의 무상과 허무를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신 것 같다. 그럼 아래에 이백의 〈將進酒〉와 정철의 〈將進酒辭〉를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자. ‘君不見黃河之水天上來, 奔流到海不復回! 君不見高堂明鏡悲白鬢, 朝如青絲暮成雪!’ 이백의 유명한 〈將進酒〉의 첫 부분이다.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우에 거적덮어 주리어 매여가나/ 류소보장의 만인이 울며 따르나/ 어옥속새 덩굴나무 백양숲에 가기만 하면/ 누른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소소리바람 불제 누가 한잔 먹자하겠는가?/ 하물며 무덤 우에 잔나비 휘파람 불 때/ 뉘우친들 무슨 소용있으랴.’ 정철 〈將進酒辭〉의 마지막 부분이다. 여기서 〈將進酒〉는 자연적 상황에 비겨 그리고 ‘高堂明鏡’의 귀한 자들도 ‘하루 사이’에 희어진 백발을 한탄하게 된다는 사항을 빌어 인생무상을 읊어내고 있다. 〈將進酒辭〉는 누구나 다 죽게 되는 사항을 전제로 하고 죽은 후면 가난한 사람이든 귀인이든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된다는 인생무상을 들먹이고 있다.

이런 인생 무상과 허무를 이백과 정철은 일종 도락주의로 갈무리하고 있다. 이런 도락은 음주가무를 떠날 수 없다. 그들이 읊은 ‘將進酒’는 바로 악부 〈鼓吹曲辭·漢鏡歌〉의 旧題로서 대개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노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로부터 일단 酒豪로서의 그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人生得意須盡歡, 莫使金樽空對月 …… 烹羊宰牛且爲樂, 會須一飲三百杯.’

가에 소장된 정철의 손때 묻은 玉杯와 銀杯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5) 家間書.

芻夫子, 丹邱生, 將進酒, 杯莫停. 與君歌一曲'(<將進酒>), 이백은 '人生得意' 즉 인생이 순탄하고 잘 나갈 때 기껏 마시고 즐기자는 향락적인 분위기를 내풍기고 있다. '한 잔 먹새그려 또 한잔 먹새그려/꽃 꺾어 산놓고 무진무진 먹새그려', 정철은 '꽃 꺾어 산놓는' 전통적으로 술 마시며 즐기는 법을 들먹이며 술을 권하고 있다. 보다시피 <將進酒>와 <將進酒辭>는 많이 닮아 있다. <旬五志>같은 데에 보면 정철의 <將進酒辭>가 이백의 <將進酒>의 시상을 탈퇴환골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철이 이백의 <將進酒>에 공감을 느꼈음은 분명한 듯하다. 비슷한 성격기질이나 인생역정은 그들로 하여금 '將進酒' 대 '將進酒'로 종족, 민족을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은 대화를 하게 했으리라!

보다시피 이백과 정철은 인생 무상과 허무를 갈무리할 도락에 빠지기 위해 술을 마셨겠지만 현실에서의 인생고민을 떨어버리기 위해서도 술잔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백은 <行路難> (二)에서 고대 성현들의 불우한 처지를 들면서 당세 정치에 쓰이지 못한 자기의 불우한 처지 등에 걸친 인생역경을 피로하고 있다. 워낙 그는 '白發三千丈, 緣愁似個長'했던 것이다. 그는 <將進酒>에서 만단의 회포를 풀고 있다. '鐘鼓饌玉不足貴, 但願長醉不願醒; 古來聖賢皆寂寞, 惟有飲者留其名. … 主人何爲言少錢, 徑須沽取對君酌. 五花馬, 千金裘, 呼兒將出換美酒, 與爾同銷萬古愁.' 여기서 이백은 '古來聖賢皆寂寞'로 마음의 위안을 가져오며 '但願長醉不願醒'하는 것으로 '與爾同銷萬古愁'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진귀한 가정 짐물들로 술을 바꿔 먹기도 한다. 정철의 <星山別曲>이나 <思美人曲>·<續美人曲>을 비롯한 가사작품들을 보면 현실의 애상과 애수가 짙은 음영으로 깔려있다. <思美人曲>의 '마음의 매친 실음 疊疊이 빠져 이셔/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人生은 有限헌데 시름도 그지업다. … 이 시름 닛자 하니 /마음의 매쳐이셔 骨髓의 께터시니/扁鵲이 열히 오다 이 병을 엇디호리를

보면 온갖 시름을 한 마디로 압축한 탄식의 '한숨'이나, 슬픔의 절정을 이루는 '눈물'로 표상된 스산함 그 자체다. 정철은 바로 술로 이런 스산함을 떨어버리려 하였다. <星山別曲>의 '世事는 구름이라 머흐도 머흘시고/엇그제 비즌 술이 어도록 니건느니/잡거니 밀거니 슬크장 거후로니/모음의 매친 시름 저그나 흐리느다'와 <題萬壽洞隣家壁>(제1수)에서 '淸愁同老杜'하니 '處處喜微杯'하는 데서는 바로 술이 시름을 드는 노릇을 하고 있다. 정철에게 있어서 술은 한낱 인생의 이상적인 경지 및 즐거움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關東別曲>에 보면 '北斗星 기우러 滄海水 부어내어/저 먹고 날 머켜 놀 ... 이 술 가져다가 西海에 고로 눈화/億萬 蒼生을 다 醉케 밍근 後의/그제야 고타만나 또한잔 하쟈고야'로 정철은 醉중의 경지를 일종 현실 삶의 이상적인 경지로 내세우기도 했다. <席上口號>(제2수)에서는 '舊國今恢復'하니 '紫霞觴'를 싫도록 마셔보겠다는 데서는 즐거움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未斷酒>에서는 술 끊지 못하는 이유를 현실의 괴리에서 찾고 <已斷酒>에서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결국은 마음의 괴로운 '心中城'을 깰 수 없으니 술을 그만 두련다고 말하고 있다. 정철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음주에 대해 많이 술회하고 있다. '動靜無常 言語失誼 千邪萬妄 皆從酒出 方其醉時 甘心行之 乃其醒也 迷而不悟 人或言之 則初不信 然既得其實 則羞愧欲死 今日如是 明日又如是 尤悔山積 補過無時 親子哀之 疎者唾之 褻天命 慢人紀 見棄於名教者 不淺焉'6), '某之飲酒 豫告知之 渠亦自言之矣 盖其飲 亦緣無遺懷 可哀也 不可嫉也'7) 같은 데서는 술로 인한 인생의 실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음주할 수밖에 없는 심중에 대한 변호하고 있다. <舟中謝客>에 보면 정철은 자기 스스로도 '半百人間醉得名' 즉 반평생에 술에 취하여 이름을 얻었다 했고 <宣祖實錄>에 보면 정철

6) 松江手紀.

7) 宣祖批答.

은 ‘澈寓居江華病酒卒’ 즉 술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되뇌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술을 뗄 수 없었던 것이다. 실로 정철의 삶은 술을 떠나 살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嬉笑怒罵나 사랑에 빠지고 성에 탐닉하는 흐트러진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이것을 현실의 답답함이나 실의에서의 일종 탈출구로 삼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백의 경우 ‘不屈己, 不干人’의 인생지조하에 그는 당현종이 총애하는 양귀비도 놀리고 간신인 재상 李林甫를 보고 바다거북을 잡는 미끼로 삼겠다고 풍자도 했으며 임금의 총애를 받는 환관 高力士에게 신을 벗겨달라고 놀리기도 한다. 그는 실로 ‘衣宮錦于舟中, 顧瞻笑傲, 傍若無人’⁸⁾, ‘沉溺尊之前, 嘯傲御座之側, 目中不知有開元天子, 何況太眞妃高力士哉!’⁹⁾했다. 이로부터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들로부터 참소와 비방을 받게 되고¹⁰⁾ 임금의 미움을 사게 되자 미련없이 벼슬을 버리고 떠나간다. 〈李白 代言詩의 심리적 메카니즘(2)〉(楊義, 〈中國古代, 近代文學研究〉 중국인민대학신문잡지복사본자료센터 2001. 1)에 의하면 이백은 남자면서 여성으로 화한 시적 주인공 차원에서 여성을 대변한 代言詩를 많이 읊었다 한다. 물론 이백은 이런 代言詩에서 자기의 회포를 기탁하여 읊기도 했다. 정철의 〈思美人曲〉, 〈續美人曲〉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感興八首〉, 〈長信宮〉, 〈寒女吟〉, 〈春思〉, 〈秋思〉, 〈代秋情〉, 〈妾薄命〉 등 代言詩에서는 神女, 황후궁녀, 서민여성, 남편을 수자리 혹은 장사에 보내고 독수공방하는 여인뿐만 아니라 〈自我內贈〉 같은 ‘寄內’, ‘贈內’ 代言詩에서는 자기 부인¹¹⁾의 입장에서 여인들의 희노애락을 읊었다는 것이

8) 劉昫:〈舊唐書·文苑列傳〉

9) 王樞登:〈李翰林分體全集序〉

10) 〈韻語陽秋〉卷10에 이백을 탄핵한 자들의 언론을 보면 ‘不知義理之所在’, ‘慮君臣之義不篤’, ‘慮兄弟之義不篤’, ‘慮朋友之義不篤’, ‘慮夫婦之義不篤’ 등 유교의 기본 윤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다. 이로서 이백의 情種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백의 시는 열에 아홉이 여자와 술을 떠나지 못한다'고 한 것은 그것이 흑평일지라도 그간의 사정을 얼마간 말해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런 代言詩에서는 여인들의 뼈에 사무치는 정욕, 정념 및 이것을 목숨 못지 않게 여기는 여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근엄한 유교도덕에 일격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정철은 시끄러운 정계를 잊고 기녀들과의 육욕적인 사랑에 탐닉하기도 한다. 〈槿花樂府〉에 '鄭松江与妓眞玉酬答'이라고 밝힌 두 편의 시조를 좀 보도록 하자.

玉이 玉이라커늘 燔玉만 너겨떠니
 이제야 보아하니 眞玉일시 적실하다.
 내게 술송곳 잇던니 뿌러볼가 호노라.¹²⁾

점잖은 정철이 언제가 술기운이 동해 옥이라는 기생에게 던지시 한 수 읊는다. 남성적인 성의 공격성을 유머스럽게 읊조리고 있다. 그런데 그 기생의 화답시 또한 만만치 않다.

鐵이 鐵이라커늘 燬鐵로만 여겼더니
 이제야 보아하니 正鐵일시 분명하다.
 내게 골불무 잇던니 뇌겨볼가 호노라.¹³⁾

결국 정철이라 하건만 '골불무'에 녹아야 하는 정철임에라 두 손 들고 만다. 육욕적인 사랑을 유머스러움 속에 마음껏 뽐어내고 있다. 일국의 재상

11) 이백은 선후로 장가를 네 번 갔다.

12) 〈瓶窩歌曲集〉에 거의 같은 내용을 싣고 작자를 玉伊라 밝혀 놓고 있는데 酬答歌로서 작품내용과 어울리지 않기에 鄭鐵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3) 〈瓶窩歌曲集〉에 거의 같은 내용을 싣고 작자를 鐵伊라 밝혀 놓고 있는데 酬答歌로서 작품내용과 어울리지 않기에 眞玉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요 〈訓民歌〉를 지어 百姓을 教化할 정도의 道德君子라 할 수 있는 정철도 그 대상이 기녀이기 때문에 이처럼 猥褻스럽기까지 한 작품을 노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또 변방의 기녀를 作妾하여 다음의 시조를 읊게도 했다고 한다.

간밤의 우던그새 예와울고 게갓다쇠난이
 님못 보아 죽어지라 흐엿떠니
 즈셔이 傳튼 못흐여고 주겨주겨 흐도다

이백과 정철은 각기 자기 시대나 민족에 있어 文名을 드날린 대단한 文豪들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백은 杜甫, 白居易와 더불어 盛唐시기 삼대시인의 하나이다. 이백은 어릴 때부터 시적 재주를 보여주어 못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한다. 일찍이 杜甫는 이백의 시에 대해 ‘筆落驚風雨, 詩成泣鬼神’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정철은 조선조 시기 이인로와 더불어 가사문학의 쌍벽을 이룰 만큼 시적 재능이 뛰어났다. 사실 그는 가사뿐만 아니라 한시, 시조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해냈다. 이백과 정철은 시를 짓는 스타일도 비슷하다. 한 글자 한 글자 피를 토해내는 듯한 杜甫식의 각고의 모대김보다는 일필휘지 식의 일사천리 그 자체다. ‘思接千載’, ‘視通萬里’, 정말 ‘李白斗酒詩百篇’의 경지다. 그리고 정철이 排律, 古詩, 賦보다는 대개 談論, 酒宴 중에 즉흥적으로 많이 지었음직한 絕句, 律詩의 양이 단연 돋보이는 것¹⁴⁾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象村은 〈松江集序〉에서 정철의 멋스런 자아도취적인 무아경의 창작경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有時持杯半酣 口詠手書 長詩短歌 交就錯成 軟語團鍊 形

14) 金思燁의 논문 〈松江의 漢詩攷〉에 보면 정철의 한시작품은 도합 579편인데 絕句 419, 律詩 126, 古詩 27, 賦 4, 排律 3 순서로 가장 짧은 絕句, 律詩가 단연 돋보인다.

跡俱忘 爽然相對 不覺膝之前也'. 그러면서 '餘見人多唉 未嘗見此格韻也'라고 격찬하고 있다.

이백과 정철의 작품세계는 활달하고 통쾌하고 시원한 맛이 있다. 먼저 이백의 대표작들을 좀 보도록 하자. 〈夢遊天姥吟留別〉를 보면 이백은 벼슬에서 물러나자 실의에 빠져 눈물콧물 짠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아름다운 꿈의 신선세계에서 노니는 도고한 모습으로 추악한 현실을 잊어버린다. 이로부터 현실세계를 떠나 이상세계에서 노니는 굴원식의 낭만주의를 꽃피운다. 자연경물을 노래한 〈望廬山瀑布〉를 좀 보도록 하자.

日照香爐生紫煙，遙看瀑布挂前川。
飛流直下三千尺，疑是銀河落九天。

여산폭포에 대해 노래하되 의인, 과장 등 수사학적 수법으로 미묘하고도 더 넓은 예술적 경지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실 이백의 시는 이런 수법으로 낭만주의적인 飄逸한 예술경지를 펼쳐 보이고 있다. '抽刀斷水水更流，舉杯銷愁愁更愁'; '桃花潭水深千尺，不及王倫送我情'; '燕山雪花大如席'; '蜀道之難難于上青天' 등은 그 전형적인 보기가 되겠다. 이백은 스스로 자기의 글은 '陽春召我以煙景，大壤假我以文章'을 추구한다고 선언했다. 정철의 〈關東別曲〉도 낭만적인 예술적 경지가 그대로 살아난다.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금강산을 위시한 관동지역의 승경을 뛰어난 심미의식과 활달한 시상 그리고 섬세한 감각과 관찰력, 거기에 흥청거리는 멋과 묘사의 탁월성 등으로 그려냈다면 뒷부분에 와서는 자연경관과 신선의 경지와 술이 한데 어울려져 있다. 정철 자신이 짐짓 '眞仙'을 자처하고 勸酒를 말하되, '北斗星 기우려 滄海水 부어내여/저 먹고 날 머커늘... 이 술 가져다가 西海에 고로 노화/億萬 蒼生을 다 醉케 밍근 後

의/그제야 고터 맛나 또 혼 잔 흐젓고야에 이르면 그의 浩浩蕩蕩한 호기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서너잔 거후로니/和風이 짹짹하야 雨腋을 추혀 드니/九萬里 長空에 저가면 날리로다'에서 보면 바로 그 자신이 신선이 되어 하늘 높이 비상하고자 하는 기상과 더불어 끝없는 낭만을 구가하는 정철의 독특한 시 정조가 넘친다. 실로 정철의 시는 動的이요, 시적 정조는 굽히고 막힌 데가 없고 밝은 낭만으로 가득하다.

이백과 정철은 시의 구체적 이미지 및 시적 분위기에 있어서도 많이 닮은 데가 있다. 이백의 〈月下獨酌〉 '舉杯邀明月 對影成三人'을 보면 외로운 서정적 주인공이 달과 동무하여 즐기는 모습이 나타난다. 정철의 〈對月獨酌〉의 '夕月杯中倒, 春風而上浮'와 〈盧子平新竹小艇于喚仙亭下要余共登〉(其一)의 '竹興時獨出, 翕酒月中遊' 등 시구들은 같은 이미지의 장난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은 이백의 〈閨情〉流水去絕國, 浮雲辭故關. 水或戀前油, 雲猶歸舊山, 恨君流沙去, 棄妾漁陽間. 玉筋夜垂流, 雙雙落朱顏. 黃鳥坐相悲, 綠楊誰更攀. 織錦心草草, 挑燈泪玖玖. 窺鏡不自識, 況及狂夫還.'를 정철의 두 '美人曲'과 비교해보면 좀 더 확인될 줄로 안다.

이상 보다시피 고대 중국과 한국의 이백과 정철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안겨오며 여러 방면에 걸친 비교분석을 가능케 했다. 비교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英雄所見略同'하듯이 대문호로서 이백과 정철은 세부적인 다른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데를 많이 드러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비교연구는 구경 인상적인 散論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보다 심입된 비교연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저서 및 논문

朱東潤 主編, 『中國歷代文學作品選』 第一冊 中篇, 上海古籍出版社 1980.

허룡구 편저, 『중국문학사』 2, 연변대학출판사 1997.

申庚林, 李殷鳳, 曹圭益, 『松江文學研究論叢』, 국학자료원 1993.

Abstract

Comparative theory of Lee Baek and Jeong Cheol

Uoo, Sang-Yeol

Lee Baek and Jeong Cheol differ from nation and have a about 800-year distance as well. But there are many similar features between them. Jeong Cheol respected Im Seok-Cheon(林石川) who had learned Lee Baek as a teacher and admired Lee Baek's poetic world and emulated Lee Baek as a model, which suggests that Lee Baek have influence on Jeong Cheol.

Lee Baek and Jeong Cheol resemble in temperament and personality. They are magnanimous, have the graceful figure and they are intelligent.

Also they sympathized with Confucian ideas of rising in the world and gaining fame(立身揚名).

Key Word

Lee Baek, Jeong Cheol